

‘햄릿’ 김강우 “14년만에 첫 연극, 초심 찾아가고 있다”



“작품들을 해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졌죠. (연기를 위한 마음을 다지기 위해) 찾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연극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연극 ‘햄릿 - 더 플레이’의 타이틀롤을 맡아 데뷔 14년 만에 연극배우로 나선 김강우(38)는 4일 오후 서울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연극에 출연하니 기분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햄릿 - 더 플레이’는 사실 김강우가 2002년 영화 ‘해안선’으로 데뷔하기 전인

2001년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재학 시절 출연한 학교 작품이 원형이다. 같은 과 연기 전공 선배이자 친분이 있는 김동연(41)이 연출한 ‘햄릿 - 슬픈 광대의 이야기’다. 그 때 역시 햄릿을 연기했다. 발전했지만 15년 만에 같은 작품의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셈이다. 이후 김강우 없이 2009년 5일간 대학로 무대에 올랐다. 올해 지 이선 작가가 합류, 세익스피어의 원작과 이 작품을 모두 아우르면서 새 작품 ‘햄릿 - 더 플레이’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역시 김 연출이 지휘한다.

충무아트센터 ‘햄릿 - 더 플레이’ 개막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하하.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죠. 동연이 형이 역시 연출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다만 당시에는 금방 이 연극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연극계에서는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자처했다. “함께 하는 분들이 다 선배예요. ‘어린 햄릿’을 맡는 아역 배우들도 공연 경력으로 따지면 다 선배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올해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에서 악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꾀하기도 한 김강우는 지적이다. 스타덤에 올린 드라마 ‘나는 달린다’ (2003)에서 가난하지만 헌책으로 책벌레를 만들 만큼 독서광인 주인공을 연기했는데 덧없이 잘 어울렸다는 평을 받았다. ‘햄릿’ 역시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색 또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달린다’에 출연했을 때가 2003년. ‘햄릿 - 슬픈 광대의 이야기’는 2년 전에 출연했죠. 이 드라마를 하면서 공연 때 선보였던 느낌을 많이 차용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을까. “당시가 가장 고민이 많았을 때였어요. 스물 다섯, 스물 여섯 때였는데 많이 어설프죠. 부족했기도 하고.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내가

배우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의 시발점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1년 데뷔작인 ‘제7회 여성연출대전 - 햄릿’에서 햄릿을 연기한 김동원(32)이 김강우와 함께 햄릿 역에 더블캐스팅됐다. 주로 박근형 연출이 이끄는 극단 골목길과 작업한 그는 제목 속 ‘플레이’(놀다라는 뜻의 동사)를 짚으며 “즐겁게 놓고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연출을 두 햄릿에 대해 “김동원에게서는 20대의 김강우가 했던 모습이 보이고 지금 김강우가 연기하는 모습에서는 살아온 생활이 보이더라”고 봤다. 김 연출과 지 작가는 무수한 변수를 통해 ‘햄릿’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햄릿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원작 설정은 그대로 두되 ‘어린햄릿’과 해골로만 존재하는 광대 ‘요리’를 새로 등장시켜 비극적 상황에 설득력을 더했다.

지 작가는 “지금 세대와 공감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원작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며 “햄릿이 가진 문장의 강력함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무 위의 군대’ ‘킬 미 나우’에 이은 대학로 연극 브랜딩 ‘연극열전6’의 세 번째 작품이다. 10월16일까지 /김민근 기자

‘한 여름밤의... 농악&정음’

12일, 정음시립농악단 정기공연
저녁 7시 30분 내장산위터파크
열림굿과 오채질굿 등 선보여

정음시립농악단(이하 시립농악단)이 오는 12일 정기공연을 갖는다. 시립농악단은 당일 저녁 7시 30분 내장산위터파크 특설무대에서 정기공연으로 ‘한 여름밤의 연희콘서트 농악&정음’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다양하고 세련된 장단과 변화무쌍한 진법, 화려한 춤사위 등이 담겨 전국 최고의 농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음농악 판굿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열림굿과 오채질굿, 오방진굿, 두마치굿, 농부가, 호러굿, 개인놀이, 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시원한 위터파크에서 한 여름밤 무더위를 잊게 하는 정음농악 판굿 한마당이 펼쳐지는 만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 관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립농악단은 올해 상반기에 30여 차례의 ‘찾아가는 농악공연’을 펼친 것은 물론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샘고을시장에서 상설공연을 진행,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연희공연 문화를 열어가고 있으며 정음농악의 멋과 흥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공연에도 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까지 한국과 북유럽의 리투아니아·라트비아 공화국 수교 25주년 기념 한국문화행사에 초청돼 한국 농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낙죽장 ‘청죽 이신입’ 기획초대전

16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서



낙죽장 ‘청죽 이신입’ 기획초대전이 16일까지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열린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낙죽장 이신입은 이번 전시에서 낙죽·낙화 기법을 이용한 신작과 대표작 25점을 선보인다. 낙죽은 불로 지진다는 뜻의 낙과 대나무 죽이 합쳐진 말로 인두로 대나무 껍질을 지져서 그림이나 문양을 넣어 표현하는 것이고, 낙화는 주로 꽃을 소재로 하여 달구어진 인두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다. 이신입 낙죽장은 부채 대나무 부분인 부채살과 변죽에는 박쥐·매화·봉 등 다양한 문양을 넣었고 부채 선면에는 낙화기법을 이용해 용·소나무·십장생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어 부채의 예술성을 한껏 드러냈다. 이번 전시작 중 끝목할 만한 작품은 가로길이 90cm 세로길이 103cm의 대형 운선으로, 선면에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민화의 모란도를 그려

넣어 화려함을 더하고, 대나무 부분에 북과 장수를 상징하는 박쥐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를 낙죽해 전주부채만의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또한 가로길이 80cm의 대형 합죽선 4점에 낙화 기법을 이용 선면에 소나무 풍경화, 십장생도, 맹호도, 운룡도를 그려 넣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 유대수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합죽선이 가진 아름다움과 더불어 합죽선의 품위를 더욱 높여주는 낙죽의 예술성을 재인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은 무료이다. 문의 전주부채문화관 231-1774~5 /정해은 기자

필봉마을굿축제 한마당 펼친다

12~14일 임실 필봉문화촌서



공동체 구성원간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는 ‘농악’ 공연예술이 한판 펼쳐진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제21회 필봉마을굿축제가 오는 12~14일 전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문화촌에서 개최된다. 필봉마을굿축제는 임실필봉농악이 호남좌도농악의 종물굿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고 양순용 선생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필봉농악을 비롯한 전국5대 농악(이리농악, 강릉농악, 평택농악, 진주·삼천포농악)을 감상할 수 있다. 신달그림이나 정초의 제사 등 여러 의례에서 공연되는 필봉농악은 현대사회의 여타 공연예술에서는 느끼기 힘든 공감과 상생의 기운이 충만하다. 작은 공동체사회의 보편적인 통과의례와 히로에라이 음악·춤·연극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생생한 삶의 기록과 예술적 미학을 동시에 표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 국제교류공연으로 무순시 조선족문화관과 대련시 조선족 문화예술관이 참여해 고전무용과 잠족 무용, 위그르족 무용, 새타령, 밀양 아리랑, 장새남 등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중 학술교류세미나도 열린다. 무순시 조선족문화관 한광옥 관장이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의 현황과 고찰을, 대련시 조선족문화예술관 황호철 관장이 중국 조선족 전통무용의 변천과 현황에 대해 발표를 이어가며, ‘굿은 협화~’를 강조해온 양진성 관장은 풍물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진 이 시대, 농악이 가진 협화의 뜻을 전한다. 양진성 필봉농악보존회장은 마을굿축제 개최와 관련 “이는 소통과 연대에 목마름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우리라는 공동성을 회복하는 귀환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문의 063-643-1902. /정해은 기자

익산영상미디어센터, 영화 프로그래머 입문교육

한국은 영화제의 천국이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100여개가 넘는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부터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정동진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또 이색적인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까지 제멋대로 다양한 타이를로 개최 되는 영화제는 꾸준히 관객들을 끌어 모으며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이런 영화제들이 지속적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영화제의 방향성과 작품 선정,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고 영화제 개최 전반을 총괄하는 영화제 프로그래머 덕분이다. 실제 영화제를 만드는 많은 분야 중 영화제의 성격과 지향점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을 이해하고 본인만의 영화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 프로그래머 입문 교육 ‘나만의 영화제 만들기’를 실시한다. 강사는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영화평론가(씨네21) 김보연씨와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영각씨가 맡았다. 영화제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원론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프로그래머의 실무와 배우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제를 직접 구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삶에서 영화가 갖는 의미를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영화제 프로그래머란 도구를 경험해보고 시도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영화 프로그래머 입문 교육 ‘나만의 영화제 만들기’는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ismedia.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는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유아들이 방을 운영한다. 문의는 070-8282-8078로 하면 된다. /익산=정영원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8일>

▷쥐띠
4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인색하면 구설이 따른다.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주변의 조언을 구하라.
72년생: 알는것보다 읽는것이 많은 때.
84년생: 작은 것에 대한 성취는 가능하나 욕심을 부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기는 운이다.
73년생: 이동이나 변동수를 가져라.
85년생: 작은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니 마음을 다스려라.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눈앞의 것을 따르기 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운.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삼가라.

▷토끼띠
51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리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나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64년생: 주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속에 답이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으니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라.

▷뱀띠
53년생: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덕으로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다.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활에 의해 힘드 일이 발생하니 사활을 끝라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하니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의무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행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힘이 있겠다.

▷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다.
58년생: 사람들과의 모임도 길하고 금전운도 좋은 운.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면 후에 얻게 되니 내손에서 나간것에 대해 아까워 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83년생: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